

“한국광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 보람 느껴”



“**광**(光)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자,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1세기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에서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태영 전 산업자원부장은 정부 관계자, 광주시, 광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광관련 관계자들의 한국광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고 더욱 분발하여 국내 광산업이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국내 광산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태영 / 전 산업자원부장관

○ 21세기 미래 첨단 산업인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광주지역을 발판으로 광산업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21세기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앞을 미리 내다본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999년부터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광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되었고 지난해 5월에는 민간추진주체로서 광산업육성과 광산업체의 지원에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정부에서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설립, 출범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동안 국내 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산업자원과 광주시,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광산업이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반도체 산업이 미세한 마이크로 기술을 구현하여 20세기의 총아로 군림했다면 광산업은 21세기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기술은 주변 기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나노(nano) 영역의 개척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발전의 필수적 요소인 대용량 정보의 초

고속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광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선진국의 시장선점은 기술혁신과 사업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집적화(clustering) 전략이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콜로라도 대학이 광산업의 센터역할을 수행하면서 집적화의 중심역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치토세 포토닉스벨리를 조성하고 있고 하마마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광기업을 집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광주에 광산업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광산업의 혁신기반을 전반적으로 레벨업시켜 나갈 것입니다”

○ 광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재까지 지방의 개발전략은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 그리고 외부기업의 유치와 기술의 도입 등 외부의존형 발전전략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능력 확충을 통해 지역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생적인 지역 발전전략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체제를 거치으면서 자력성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지게 되었으며 광주에서도 이같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당시 산자부에서는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의 신발산업, 광주의 첨단산업을 3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1차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하여 강도높게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광주시에서도 1999년 1월 지역교수와 기업인, 공무원 34명으로 과학기술전략기획연구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과 산업진흥정책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10여회의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친결과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계획』의 시안을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산자부에 있을때 이 시안을 토대로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것입니다”

○ 새로운 산업으로서 광산업의 육성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광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핵심기술 산업이며 특히 21세기「초고속 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입니다. 광은 대용량·초고속 정보의 전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의 정보화사회 실현이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시장성이 대단히 큰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2000년 현재 전세계 광산업 시장은 1,30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규모와 비슷하며 미국 광산업협회에서는 2005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300억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4,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은 광산업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광시장의 선점에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발전 초기에 있는 광산업을 적기에 육성하여 21세기 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끝으로 한국광산업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하신다면.

“정부는 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의 광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표산업으로서 광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우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광주만이 아닌 전국의 광기업을 일층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은 제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의 광집적화는 지역경제 문제이면서도 국가경제 문제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적화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가 한국광산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광주 광산업단지를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취재 / 윤희진 기자〉